



배합사료에 국산보리 사용

사료곡물 도입량의 증가를 억제키 위해 국내산 보리를 사료화하여 이용할 방침, 옥수수의 90~95%의 사료적 가치 있어.

농수산부는 사료곡물 다원화 방침에 따라 7월부터 배합사료에 국산 보리 곡물을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로 16만 1천톤을 7월말부터 전국 80여개 사료업체에 배합사료용으로 공급키로 했는데, 보리값이 톤당 413달러로 도입옥수수 163 달러보다 2.5배나 비싸 지금까지 거의 도입 옥수수를 써온 사료업체들은 보리를 섞어 쓸 경우 4~5%의 가격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이유로 보리사용을 반대해 왔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사료곡물 다변화시책으로 3~3.5%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리를 사료용으로 쓰게 된 것이다.

한편 농수산부에 따르면 사료곡물 다양화 시책으로 올 상반기에 약 1,400억원의 외화를 절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리는 구미각국에서 중요한 곡류사료로서 사용되고 있고 또 가축의 에너지사료로 쓰이는데 옥수수에 비하여 단백질의 함량(12.5%)이 많고 품질도 우수하나 기호성·에너지가 낮고 섬유소가 많아 옥수수의 약 90~95%의 사료적 가치가 있으며 라이신을 첨가하면 사료적 가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작년 사료곡물 도입량은 390만톤(5억 4천만 달러)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단일수입품목으로 원유다음으로 사료곡물이 외화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어 국제수지 악화와 외채누적을 가중시키고 있어 도입량을 축소 내지는 도입곡물을 다양화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등장했다.

따라서 사료곡물 도입량의 증가를 억제키위해 정부는 국내산보리 207,000톤과 국내산 옥수수 41,000톤을 사료화하여 이용하는 계획을 '84 사료 수급자료에 발표한바 있다.

또 도입곡종의 다양화로 배합사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존 옥수수 일변도에서 옥수수 60%, 기타곡물 40%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배합사료 원료로 보리곡물을 사용하는 필요성은 사료곡물 도입량 증가의억제와 외화절약이라는 차원에서 받아 들여져야 할 것 같다.

사료곡종 다양화이후 양축가들 사이에서 사료품질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그 과학적인 원인규명이 앞서야 된다고 제조업체측에서 불메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다양화이후 순치기간이 없어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국내 축산경기가 나빠자 사료가격을 감당못해 외상이 누적된 가운데 영세농가에서 사료 종류를 한단계씩 낮춰서 급여하는 경향이 있어 품질문제가 제기된 것 같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양돈사료가운데 육성돈 이후의 사료와 종돈사료에는 거의가 보리를 최대한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L-라이신을 첨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산 보리를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해도 품질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국내 보리가격이 높아 사료생산비에 영향을 미쳐 양축가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데 이러한 인상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다.